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 N. Seattle WA 98133 (206) 546-6746
Beom Hoe Koo, Publisher
Chong Sye Kwak, Editor
Printed By Pro-Litho Inc.

VOL 1 NO. 6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ULY & AUGUST 1974

국경을 넘나드는 낭만의 피크닉 급변에 씨애틀의 우드랜드 공원에서.



타코마 팀에 첫 우승배. 씨애틀-타코마 친선 축구시합에서

해마다 국경을 오가며 무정의 향연을 나누기 여섯번. 미국과 캐나다에 흩어사는 동포끼리 일년에 한번씩 전우적비마냥 만나는 한회의 피크닉이다.

오 갈매마다 지나오는 국경선을 대할 때 마다 교귀의 분단된 선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누구든지 느끼는 심정 이리라.

한인회의 년중행사인 씨애틀-타코마 지역 교포친선 축구시합이 급변부터 본격적인 대회규모로 성장했다. 지난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와싱턴 대학 축구장에서 많은 교포들의 흥분 속에 개막되었는데 마침 씨애틀을 방문중인 상항주재 윤관총영사의 격려는 이 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전열몰 가다듬은 양팀 선수들은 유니폼도 산뜻한 모습으로 입장했다.

구 번째 한인회장의 격려사와 윤관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박남표 심판장의 시합규정및 경기세칙을 발표한다음 윤관총영사의 시축으로 개막되었다. 이날 시합에서 전반전 3:0, 후반전 3:1의 스코어로 타코마 팀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우승배는 타코마 팀이 차지하였다. 오랫동안 보는 열연교포들의 응원과 환호성은 운동장을 들뜨게 했으며, 옛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 못하고 개미기에 의존하는 씨애틀 팀에 비해 팀 워이 잘 된 타코마 팀의 승리는 박남표교수의 노력과 선수들의 오랜 연습의 결과였다.

시합이 끝난후 이 창회선생 내외분이 양팀 선수와 임원및 친지들 전원을 「뉴 코리아」 식당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항상 교포사회의 유대와 발전을 위해 패사를 서슴치 않는 이 창회 선생 내외분께 재삼 감사.



(위) 우승팀 밴쿠버 주장에게 우승배 수여 광경.
(아래) 남작배구 열린 광경.

8.15 경축 한인회 피크닉 개최 공고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한인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념 야유회를 갖고자 하오니 모두 모여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 * * *

시일: 1974년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Lincoln Park (윌면 약도참조)

* 점심식사 및 순서 뒷면참조

한인회 회장 구범희.

국경을 넘나드는 남만의 피크닉

지난 6월 마지막 일요일인 30일, 멀리 캐나다에서 오는 동포들을 맞이하는 씨애틀 교포들은 흥분을 감아 앉히고 아침 일찍부터 워드랜드 공원에서 피크닉 준비를 했다.

개회식이 있거니와 김해성목사 사회로 합동예배가 시작되어 반법성목사의 목자의 기도, 유성원목사의 본분봉독에 이어 최용길목사의 설교와 김동형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이어 구법회 씨애틀-와싱톤주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김홍권 밴쿠버 한인회장의 인사, 그리고 최명준 밴쿠버 총영사와 Richard Matheson 와싱톤주 명예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점심식사후에 시작된 어린이들의 재롱튀김 게임과 노인 오락 게임은 흥겨운 잔치기분을 돋구었다.

남자야구로 시작된 본 경기에서 야구는 7:5로 씨애틀 팀이 이겼고 남매 탁구볼과 남매 배구 모두 밴쿠버 팀이 이겨 종합 스코어는 4:1로 밴쿠버의 승리로 장식했다. 마지막 빅 게임인 남매 배구 경기에서 각각 1세트씩 이긴 두 팀은 3세트에서 죽스어게인까지 이어가는 백중환 실력으로 손에 땀을 쥐게하는 흥분의 연속이었다. 결국 세트스코어 2:1로 씨애틀팀이 본패했지만 아쉬움없이 볼 게임을 했기에 영광을 밴쿠버에 보낸다.

특히 이날 상항에 있는 윤찬 총영사께서 한인회보를 통해 씨애틀-밴쿠버의 친선 피크닉을 알고 이를 위해 100불을 전해왔고 이날 선전을 했지만 본패한 씨애틀 선수들을 위해 구법회 한인회장과 남성삼 섬외부장은 각각 금일봉을 기부하여 위로했으며 유성원목사도 15명 분 저택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내년 피크닉은 토요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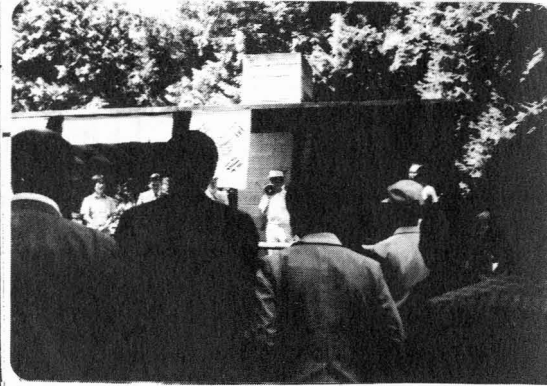
밴쿠버와 씨애틀 한인회에서는 일요일에 실시하던 친선 피크닉을 내년부터는 토요일로 하되 장소는 씨애틀과 밴쿠버 중간지점 공원을 택하기로 했다고 한다.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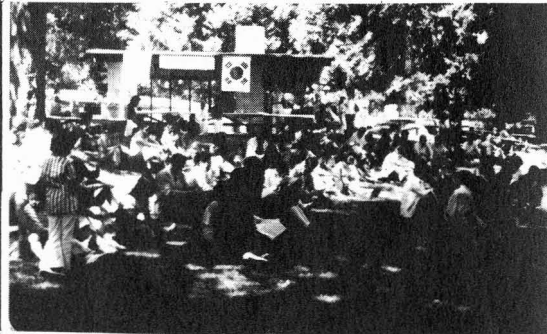
◎ 성경 1권, 찬송가 1권, 안경 1을 씨애틀-밴쿠버 친선 야유회에서 습득했으니 잃어 버린 분은 섬외인 남성삼 씨(전화 623-9740)에게로 요망.

잃은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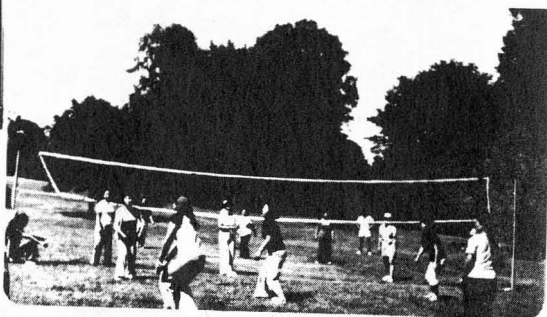
◎ 카메라 1대, 배구공 1개(전계성씨 개인소유)를 찾고 있습니다. 보관하신 분이 계시면 한인회로 연락해 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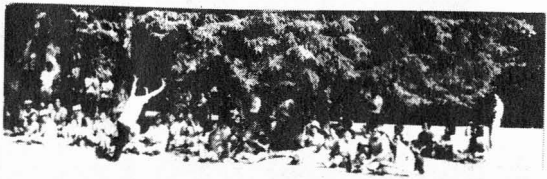
1. 개회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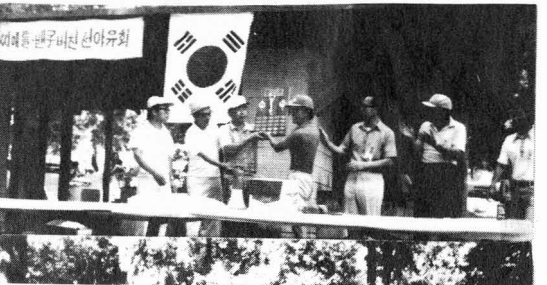
2. 합동 예배 광경



3. 씨애틀 대 밴쿠버 배구경기



4. 씨애틀팀 응원 광경



5. 시상식 광경



6. 공차기 게임 광경



씨애틀, 타코마 지역 교포친선 축구시합

김상협 고대총장 씨애틀 방문

지난 6월 27일 고려대학교 김상협총장께서 부인을 동반하고 씨애틀을 방문했다. 구미 여러나라의 교육제도를 시찰하는 도중에 이곳을 방문한 김총장 내외분은 3박 4일의 체재기간중 여러교포와 고대 동문들의 관심속에 바쁜 일정을 보냈다. 28일 와싱턴 대학교에서의 진지한 대화는 뜻깊은 여운을 남겼다. 김총장 체재중 결성된 「고대 교우회」는 회장에 황수철, 부회장에 장진섭, 총무에 서진영 씨를 선출하고 와싱톤주에 거주하는 고려대학교 「교우가족 찾기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창립을 자축하는 뜻에서 제 1차 야유회를 7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워드랜드 공원에서 갖기로 하겠다고 한다. 교우가족들은 모두 참석하길 바라고 있다. 연락하실분은 ☎ 364-2729 황수철 회장댁으로.

윤주영 문공부장관 씨애틀 방문

윤주영 문공부장관은 황선필 홍보조정관등 일행과 같이 씨애틀을 방문후 스포케인시의 Expo'74 한국관을 시찰하고 남미로 떠났다. 윤 장관은 대통령특사로 중남미 에쿠아도, 아르헨티나, 칠레등 3개국을 순방, 한국과의 친선유대를 강화.



정명훈 군 영광의 2위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회 피아노부문서

피아니스트 정명훈군(21)이 한국 음악가로서는 처음 「모스코바」에서 열린 국제 차이코프스키 음악제에 참가, 피아노 부문에서 영광의 2위를 차지했다.

윤찬 상항 총영사

씨애틀 방문

윤찬 상항 총영사는 부인을 동반하고 지난 6월 21일 타코마에서 거행된 한국 해군함정 진수식에 참석하고 이튿날 씨애틀 한인회를 방문하였다. 마칩 씨애틀-타코마 친선 축구시합에 참석하여 이 지역에 있는 교포사회의 발전과 친선을 도모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축사와 뜻깊은 경기를 위해 시축을 해주었다. 이날 오후 비행기편으로 Expo'74의 한국관을 순방하기 위해 스포케인으로 향했다.

태완선 부총리 씨애틀 방문

지난 7월 19일 태완선부총리는 대미경제 협력사절단 일행과 함께 씨애틀을 방문, 한국무역진흥공사 씨애틀 지소(지소장 이규룡)의 업무현황 브리핑을 듣고 스포케인시에서 열리는 Expo'74의 한국관을 시찰하고자 씨애틀을 떠났다.

씨애틀 한인형제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

7월 7일(첫째주일은)은 씨애틀 한인형제교회(최용길목사시무)의 3주년 기념예배가 있었다. 각 교회에서 보내온 축하 메세지와 이웃형제교우들의 많은 참여는 오랫동안 맛보는 흐뭇한 교포사회의 분위기였으며 교회소식이었다. 전계성박사께서 교회연혁과 교회사업및 발전과정을 소개하였고 기쁨의 설교는 제일장로교회 조앤 리를목사였다. 특히 김명오선생의 독창과 로이드 페이지씨의 하모니카독주, 섬가대의 찬양은 감명깊었다. 예배후의 기념다과 파티는 씨애틀에 있는 각 교회 교우들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정표를 밝혀주는 뜻깊은 잔치였다.

신임회장에 이정복군 학생회 임원 개선

지난 6월 18일 와싱턴 대학교 한국 학생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이 정복군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신임 이회장은 유창립군을 부회장으로 지명하고 총무에 태석원군 재무에 서혜정양을 임명했다. 신임회장의 주소는 4717 18th Ave. N.E. Seattle, Wash., 98105 Tel. 525-3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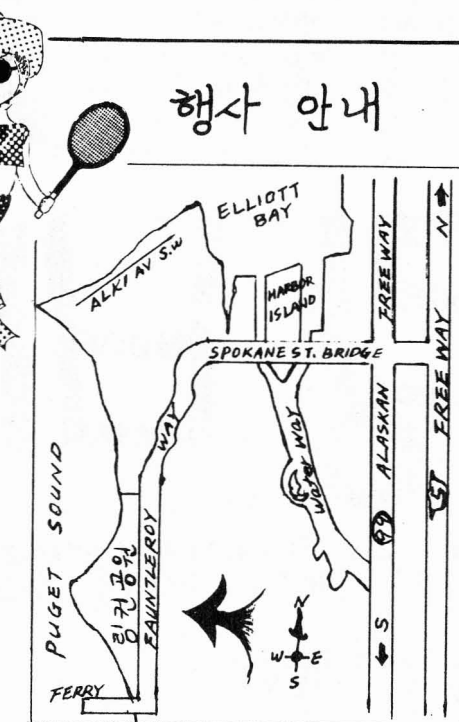
8.15 경축행사 학생회에서

와싱턴 대학의 한국 유학생회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교내 HUB 309호실에서 기념행사를 가진다. 간단한 기념식에 이어 「한국역사 발전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기념 심포지엄을 가지는데 연사는 최익환(비교문학박사), 김원근(한양대 교수), 박건홍(정치학 전공), 이수길(한국은행조사역)이다. 이날 기념행사의 마지막순서로서는 기념파티가 있을 예정인데 학생은 물론 일반교포들도 많이 참석해 주길 바라고 있다.

8.15 경축

시일 ; 1974. 8. 17. 토요일
장소 ; Lincoln Park
접수 ; 10:30 - 11:00
기념식 ; 11:00 - 11:30
점심 ; 11:30 - 1:00
어린이, 노인경기 ; 1:00 - 2:00
운동경기 ; 1:00 - 4:00
◎ 남자배구(U.W팀, 타코마팀, 일반팀)
여자탁구볼(씨애틀, 타코마)

※ 점심식사는 한인회에서 불고기 백반을 음료수와 함께 마천기로 함. 일반 2불, 학생및 아동(10세 이상) 1불씩을(10세 이하 무료제공) 받고 봉사하기도 하였으나 교포여러분은 모두 나오셔서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

이 광희

이제 내가 글을 쓰는 누가 읽어주라 하고, 글쓰기를 단념하고 있는데 쓰라는 부탁을 받았다. 거절을 하려다가,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 사랑하는 동료, 친구들에게, 그것을 전 하고 싶어서 붓을 들었다.

얼마전에, 80세에 된 여박사님이 이곳을 지나시며 숨 만나자고 하시므로 뵈오려 가면서 이분이야말로 과연 늙으셨겠구나 하였는데 가서 뵈옵고는 깜짝 놀래어, 어찌면 이렇게 정정하시오 활력이 왕성하시니까 한주, 그 선생님은 "내발서 그런 말 붙실줄 알았오, 나 자신도 내건 장을 피곤같이 생각하고, 화남께 늘 감사함을 잊지오. 내가 본시 그리 돈독한 사람도 아니오. 한가지 내가 아는것은, 내가 늙었다고 자퇴하지 않고 50년을 버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회의 일이라면, 교육사업이라면, 限程고 쫓아 다니시오. 이것이 내 건장유지에 한 큰 動力인 줄 알아요. 내가 만약 늙었다 자퇴하고 後退하였다면 벌써 10여년전에 죽었단지, 그걸 참으면 지금 젊은 방분밖에 가어나오지도 못하는 할망구가 됐을거요. Mr. Lee 도, 애여, 늙었다고 자퇴하지 말아요..."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이요 뜻있는 교훈이라 감격하여 머리숙이고 받았다.

一所를 꾸준히 사람답게 살아가는 위훈일이 아니다. 어렵고 큰 일을 장해 넘기지만, 평범하고 지리하고 실행치 않고 실증하는 일로 꾸준히 치루어 나가는 것이 문제이다. 가정의 분화도, 단체의 쇠퇴도 여기에서 생긴다. 나는 건강을 중시 못해서 20여년에는 우리들의 모임에 빠지고 싶은 때가 많다. 어떤 때는 오느니 참말 몇사람 안 나올터이니 가서 觀望이라도 해야 되리라 바기 못해 나갔다가, 뜻밖에 好轉되어 좋은 인상과 감동과 새희망과 열심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면서 오는 참석만 했다면 참 멋진 밤을 보낸 것만 대가 각금 있었다. 우리사회의 집회상대를 관찰하면, 호기심을 끄는 時事가 없는 동상 회에서의 출석률이 너무 떨어진다 적어도 그날부터는 원이아 할것인데... 하게 된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손꼽는 이로서 한가한 사람은 없다. 바쁘고 고단하다. 그래서 이번 한번은 빠진 이 여러하고 고만두이 본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流行되기 시작되면 우리 目標達成에 큰 해독을 주며 個人의 人格向上과 보전에도 해독을 줄것이다. 이 지방에 한인수가 많고 있고 한인회도 저절로 발전되었음에 따라, 장래한일도 많아진 동시에 한심하고 신력나는 일도 많다 그러나 海외로 進出하는 同族의 多수이며 우리 僑約에서 오는 義務이나 꾸준한 노력으로 前進 발전! 進退, 退路는 絶大禁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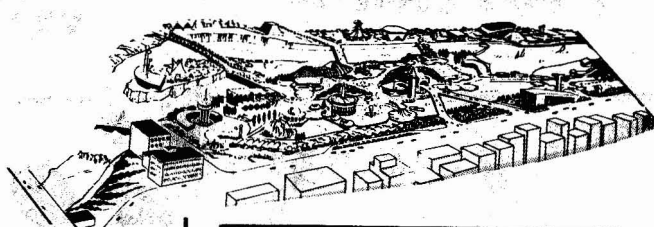


Expo '74 Korean National Day KOTRA에서 관광초대

스포케인에서 열리고 있는 Expo '74에는 세계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예약된 호텔이나 모텔등 숙박시설의 부족과 민박도 어려운 실정하기에 40여명의 관광객들은 보고싶은 한국관의 모습도 미루어 왔다.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스포케인에서는 이 날을 "Korean National Day"를 정하고 "리틀엔젤스"의 특별 공연등 기념행사가 있는데 미국 부통령 "포드"씨가 특별 참석하고 한국측에서는 안광호 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다.

특히 이 날을 맞아 40여명 KOTRA 지소장이 귀환시 주선으로 14, 15 양일간 박람회장에 오는 교통편을 위해 스포케인 시내에 숙박시설을 확보하여(숙박비는 2인 \$13, 3인 \$15로 선착순 50명) 숙소에서 박람회장까지의 교통편으로 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며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화연락 바람.

무역진흥공사 이 귀환 Tel: 623-3558 (Bank of California Center내)



NEW BOOK

KOREA:

The Third Republic

288 Pages Photographs, \$6.95

韓國
第三共和國
鄭慶朝博士著

NEW KOREA

KOREA TOMORROW

BY
DR. KYUNG CHO CHUNG

THE MACMILLAN CO.

866 3RD AVENUE, NEW YORK

날로 발전하는 한인회에

임원과 이사들의 수 증가시켜야

한인회의 대외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대내업무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수많은 회원에게 보다 높은 봉사기관인 한인회가 되기 위해서는 임원및이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한인회 사무소를 설치, 유급사무직원을 두어 영속적인 업무수행을 할수있어야 한다고 보는 유지들이 많아졌다. 임원수를 늘이자면 먼저 회칙개정 부터 해야 하고 그러자니 총회를 소집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전회원이 한인회의 발전을 위하고 또 이를 위해 적극 참여, 재정적인 뒷바침을 해준다면 곧 회칙을 개정하여 다음 선거때 일 할 분들을 뽑을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회칙개정 이외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면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들어보면

- 1) 금년 10월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회관설치위원회 임원개선에 관한건.
- 2) 한인회관 설치에 관한 건 — 조금 활동 이외에 회관의 규모, 설치목표, 토확정 및 운영에 관한 성격문제.
- 3) 한인회의 목적과 IRS 관계 —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인회가 교육기관이나 자선구호단체로서 활동해야 하는데 면세혜택을 받지않고더라도 우리 한인회 본연의 목적취지에 나감것이지의 여유.
- 4) 한인회에 단일재무, 별도 회계제도의 채택 — 현재 한인회내에 있는 회관설치위원회의 재무를 한인회 재무와 통합, 한 사람을 두되, 회계상의 계정은 별도로 둔다.

등으로서 내년도 한인회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총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개정은 미리 해 두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세아인 무료건강진료소

아세아인 의사들과 와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생들로 구성된 아세아인 건강진료소(Asian Community Health Clinic)는 소독이 낮은 아세아인을 위해 무료진료업무와 가족계획에 관한 상담도 무료로 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6:30~9:30 주소: 2902 Beacon Ave. South, Seattle, Wash. 98144 ☎ 322-1663.



KOTRA 주최 골프대회

박 남표씨 우승

지난 7월 27일에는 Lake Spanna lky 골프코스에서 와싱턴주 한인 골프대회가 개최 되었는데 20여명의 골프동호인이 참석한 이 날대회에서는 캄파온(Low gross)에 타고마의 박 남표씨, Low net에서는 Lynnwood의 이 득재씨가 1등상을 차지하였다.

아세아인 교육협회 부회장에

김 석민씨 피선 활약

아세아인 교육협회(Asian American Education Association)에서는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2nd Annual Conference가 Blain Memorial Methodist Church에서 개최된다 한다 현재 170여명의 교육자및 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회원에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인 회원은 유재건, 오 계희, 김철동, 한 병희, 민 난희, Nelson 박, 김 석민씨 등이다. 특히, 김 석민씨는 작년도에 재무로 봉사하다가 금년도에 부회장에 피선되어 활약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있는 많은 한국인들의 가입을 바라고 있는 본회는 회비는 년 \$5이며 아래 주소로 남 부하면 회원이 될수가 있다고 한다.

Asian American Education Association
1200 South Lamder St.,
Seattle, Wash., 98144

한인 여자 야구팀 창단?!

젊은 여성교포들로 구성된 연식야구(Soft Ball)팀이 곧 창단될것 같다. 이를 추진하는 U.W.의 이 명숙양에 의하면 현재 약 10여명의 선수후보생들의 찬성과 지를 받고 연습에 들어가는데 곧 정식으로 창단하게 되면 Women's League에 가입하여 여러 다른 팀들과 정기적으로 시합을 가질 예정이다. 연락 책임자 이 명숙양의 전화번호는 523-3766이며 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바라고 있다.

한국 여류 변호사

이 태영 박사 Seattle 방문

한국여성법조계의 선구자이며 현재 가정 법률상담소 소장인 이 태영박사가 오는 7월 29일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여류법조인대회에 참석차 가는길에 27일에는 Seattle에 들려 교포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일찌기 이화여전 가사과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졸업후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논문제목: 한국이혼연구 1969년)를 받은 이 태영소장은 양교 동문회에서 주최한 환영리셉션을 겸해 토요일 저녁 8시부터 U.W.에서 여성과 법률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두 시간에 걸친 강연과 한시간 반 동안의 질문과 답변 순서는 이날 나온 60여명(대부분이 여성교포들)의 방청자들에게 한국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상식 전반에 걸쳐 유익한 가르침이 되었다.

골프 클럽 소식

40여명 골프클럽에서는 지난 6월 21일 안 병영씨에서 총회를 열고 임원선출및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작성하였는데 회장 안 병영, 부 회장에 조 영, 재무에 이 귀환씨를 각각 선출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6월 29일 40여명대 밴쿠버 친선 골프대회를 작스 골프장에서 개최하였고 7월 27일에는 KOTRA(한국 무역 진흥공사)의 40여명 지소장 이 귀환씨가 주최하는 골프대회를 주관하고 8월 24일에는 국제무역(김 홍식 사장)이 주최하는 골프대회를, 9월에는 박 충훈 무역 협회장배 정팔 밴쿠버 - 40여명 - 포틀랜드 세 도시 대항 골프대회를 40여명에서 개최예정인바 대회 참가 희망자는 안 병영회장덕(522-1941)으로 연락요.



와싱턴주 대 오리건주 한인 골프대회

아리랑 밤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 - 1896





<컬럼> 호 반

사랑의 대화

-곽 종세-

II.

I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랑」이란 남녀간의 애정이나 연애기분 정도밖에 묻지 하지 않으며 그 유형에도 「벤틀」의 순수성 보다는 「사로메」이나 「돈·주앙」의 애정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현대라는 사회상은 냉철한 지식과 정확·정밀한 매카니즘의 소용돌이속에서 자동적으로 운전되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사랑」이란 말은 낭만처럼 다루어지지, 왕부의 「일」처럼 다루어진다. 이상과 여유가 있는 기쁜 「사랑」이 아니라 욕구충족을 위한 사랑인 것이다. 사랑이 우리 인간의 인격과 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생명이란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느껴 보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자유와 과학이라는文明的 울속에 사는 인간에게 참다운 「사랑의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공기과 물과 불이 흔하니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것 같이....

공산·사회주의 사회에선 「사랑」이란 하나의 주관적인 애향 감상이어서 적어도 혁명을 운운하는 성인으로서의 논할바 아니라 한다. 그래서 지식인이 판단하는대로 무자비하게 단행하여 「영웅」이 되는것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비정한 영웅보다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재와 무자비한 권력의 과반수를 냉동시키고 있기에 우리는 더 「사랑」의 훈풍을 멀리 널리 일으켜야겠다. 사랑은 인간성의 생명이기....

X X X



탄 생

○ 송 종호씨 - 지난 7월 3일 이민 1주년 기념으로 목동자를 산하고 「영빈」이라 이름을 짓고는 희색이 띠었다. 2남 1녀를 거느린 어깨집이 가벼워지길...

○ 안 병용씨(프루덴셜 에이전트) - 지난 6월 29일 귀여운 따님순산.

○ Julian 헤진씨 - 지난 6월 12일 귀여운 첫 따님 순산. 산모도 건강하다니 다행.

남녀애는 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래가지 못한다. 나를 화생 하려는 더 높은 「사랑」의 차원으로 정화되어 나보다도 상대방을 위하려는 心情이 교류될 경우에만 그 심미적인 사랑이 오래 계속될수 있는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에 보답하려는 심정이 무려나오면 그것이 곧 孝行이다. 이렇게 한 가정의 주고받는 「사랑」으로 어울려질때에만 그 가정이 행복이 깃드는것이다. 물론 다른 조건이 결여되어 되지만 그런것들은 제2차적인 것이다. 나라도 사회도 이 원리를 벗어 나지 못한다. 사랑과 신의가 통하지 않고 사기와 수탈과 불신이 늘어나는 사회에 행복이 올리는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가정애의 모습이 국가생활에 이어지는데서 찾을수있으며 이것이 큰 민족생활에 퍼져나갈때 이른바 「인류애」가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동양의 선현들도 다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지만 「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하고 천인부를 그의 자녀라하고 하나님과 사랑, 사랑과 사랑이 「사랑」으로 화목하는것이 영원한 天國이라고 가르친것은 역시 人類生活의 終末의인 완성이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날을 시사한것이라 하겠다. 현실은 비근한데 있는것이다. 「사랑」은 심오한 철학이나 구름가의 찬란한 무지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부모친자를 생각하면 사랑은 거기에 벌써 있는것이며 나도 그 속에 있는것임을 느끼게 된다. 다만 그것을 승화시켜 조국애, 인류애로 발전시키는 정열과 의욕이 있어야겠다.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기....

결 혼

○ 조 영씨(한인회관설치위원회 총무)는 지난 7월 12일 금요일 김동협 목사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 잠간 쉬어 갑시다

결혼: 3주일 동안 서로 지낼일 하고
3개월 동안 서로 사랑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잡고 견디는것.

789 時代: 7시간은 일하고
8시간은 잠을 자고
9시간은 기분전환을 위해 휴양.



회비 납부자 명단

44. 김 성길	\$ 10.00
45. 송 종대	10.00
46. 성 민정	10.00
47. 김 창환	10.00
48. 예 주해	5.00
49. Mrs. 전숙 Hughes	10.00
50. Mrs. 허석 Smith	10.00
51. 곽 종세	10.00
52. 최 금선	5.00
53. 이 순모	10.00
54. Mrs. Chang Run McCauley	20.00
55. 안 병명	10.00
56. 조 영	10.00
57. 박 일영	10.00
58. 천 정국	10.00
59. Mrs. 남주 Pearl	5.00
60. 신 부식	10.00
61. 오 계희	10.00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논문을 비롯하여 교포사회에의 바람직한 제안, 정부당국에의 제언, 미국 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성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시때나 연락사항이 있으시면 편지를 맡은 곽종세씨에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Mr. Chong Sye Kwak, Editor
4416 Burke Ave. N.
Seattle, Wa., 98103
Tel. 632-5322

고려대학교 교우에게

저희 와싱턴주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교우 가족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첫 야유회를 아래 장소에서 갖기로 하였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기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 +

일시: 1974년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우들랜드 공원
연락처: 황수철 회장대 (364-2729)
와싱턴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황수철

동 정

○ 서 두수박사(한인회 이사장) - 워싱턴 주립대학교 교수이신 서 박사는 여름동안 하바드 대학교 동양학 연구실에서 자료 수집 및 논문관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소식.

○ 동 완(한국 외국어대학 노서아어과 과장) - 미국무성 초청으로 미국 교육계 시찰 순방중 씨애틀 방문. 동 교수는 고안 호상박사의 만사위이며 U.W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유 대식씨는 막내 사위여서 동서간의 재회로 즐거운 별일을 보낼.

○ 박 암씨(배달 천목회대표) - 3개월 동안 모국방문을 마치고 7월 18일경 귀국 했다고 함.

○ 한 병희씨(정 정훈박사부인) -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 씨애틀 교육청에 근무하며 재출한 학위논문 통과, 부부박사가 된 정 박사내외는 내년 에 국방과학연구원과 대학에서 연구와 교수로 이바지코려 귀국예정.

○ 이 병원씨 - 그동안 이 교장에서 한국의 민속무용 및 고전음악을 선보여 교포 및 외국인들에게 감탄을 받아온 이씨는 「동양음악 비교연구」로 U.W에서 Ph.D. 획득하고 하와이 대학에서 강의중.

○ 박 전자씨(최 용길목사 부인) - 10여년만에 노모께서 위독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약 3주 예정으로 모국방문. 교포 자녀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세워 헌신해 오는 박씨는 그동안의 공백은 봉사활동을 자원으로 다른 분들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 최 종완씨(공업진흥청 청장) - 지난 6월 29일 중남미 표준화사업 시찰차 가는 길에 씨애틀 방문.

○ 최 애경씨(홍익대 재단이사장) - 미국 학계 시찰차 순방중 7월 12일 씨애틀 방문.

○ 김 선익씨(L.A. 무역진흥공사 부관장) - 스포케인 Expo '74 박람회업무차 7월 15일 씨애틀 방문.

○ 오 실광씨(삼정산업사장) - 7월 19일 식료품 시장개척차 씨애틀 방문.



교회 소식

○ 씨애틀 한인교회(김 해성 목사주무) 매주 12시에 보던 예배를 7월 7일 부터는 9:30분으로 앞당겼으니 교인 여러분께서 시간에 착오없도록 바라고 있다.

○ 씨애틀 한인교회(최 용길 목사주무) 7월 7일 3주년 기념예배를 성대히 거행. 각 교회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와 각 교회 교우들의 많은 참석으로 교포 형제 교우들의 친목을 도모할 이점표를 밝혀줌.

제 1회 한인교회 청년 체육대회.
8.15 광복절 맞아

와싱턴주 한인 교역자 천목회(회장 유승원 목사) 주관으로 한인교회 청년 체육대회를 8월 10일 Woodland park 축구장에서 개최될 예정. 경기종목은 축구(남자) 배구(6인조 남녀혼성) 탁구(여자)이라하니 많은 참가요망한다고.



한인회보 구독신청은...

전화 546-6746 <구 법회>
632-5322 <곽 종세>
* 매월 발행되는 회보는 무료배부하며 주소록은 정회원에게 한하여 무료로 배부함. 정회원자격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함.

회비 납부 요망

한인회 재무부에서는 와싱턴주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회비를 납부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회비는 부부 10불이며 (단 18세 이상인 독신자는 5불) 아래 양식에 주소 성명 및 금액을 명기하여 회보에 첨부된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회비를 보낼때는 수표나 「마니오더」를 이용하고 원금은 절대로 동봉하지 말도록 부탁드린다. 회비를 내신분에게는 영수증을 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달 발행될 회보에 그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있도록 되어있다.

한인회 재무 집행권 커바
TO: J. H. Kim, Treasurer
Seattle-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1974년도 회비 \$10.00 (독신자는 \$5.00)과 한인회 운영을 위한 찬조금 \$_____, 도합 \$_____을 동봉하였습니다.

성명(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아버지 저희들의 교육보험이 있으시나요?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익배당이 많은
프루덴셜보험!

*자동차보험 *건강 보험
*생명 보험 *단체 보험
*저축 보험 *화재 보험
*교육 보험 *사업 보험

싼가격으로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특별 대리인 안 병 용

PHILIP BYUNG-YONG AHN
Special Agent
The Prudential Insurance Co. of America
Prudential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
201 Broad St., Seattle, Wash. 98121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INSURANCE OF ALL KINDS FOR -
CAR * LIFE * FIRE * HOME * BUSINESS
HEALTH * BOAT * BOND * MOTORCYCLE



NORTHWEST ORIENT



* 여행의 상담자 *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여행상담은

김의 여행사



KIM'S TRAVEL SERVICE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대표: 김창성

{ 624-2227
624-2228
RES. 776-7115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16520 Linden Avenue North
Seattle, Washington 98133



Dr. & Mrs. Mansop Hahn
4232 N.E. 17th St.
Renton, Wash. 98055